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 회사 ESG를 이야기하다

ESG전략팀 전원 팀장

최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 회사 ESG전략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ESG 중장기 전략은 물론 ESG 위원회 및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ESG전략팀 전원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ESG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글 홍보팀 사진 류창렬



1. ESG란 무엇이며, ESG 경영체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 요소를 뜻합니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깨끗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Green Growth(친환경 사업을 통한 그린 성장), Green Value(안전/사람 중심 가치 창출), Green Leadership(공정/투명 경영 내재화)이라는 세 가지 Pillar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의 ESG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이익이나 부채, 자산 등 눈에 보이는 재무적 요소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가 중요한 가치평가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는 ESG를 주요 투자 요인으로 고려하는 한편, ESG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ESG 관련 평가 지표를 만들어 매년 평가를 진행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죠. 이처럼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계속해서 확산하는 중입니다.

3. 이런 환경 속에서 ESG전략팀이 특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SG전략팀은 2022년 7월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는 전사 ESG 중장기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이사회 및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ESG 위원회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ESG 경영체계가 회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략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죠. 지난해 말, 저희 팀에서는 회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항목과 회사 경영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ESG 성과 지표 Pool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환경,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등 각 분야별 경영진에게 부여된 책임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ESG KPI 지표를 수립·배정했습니다. ESG 경영은 내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구축하는 것만큼, 대외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첫 단계로 작년부터 ESG 통합 보고서 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통합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향성과 성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이 ESG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사내 캠페인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걸음만큼 지정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Green Walk Together’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최근에는 ‘ESG 7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잔반 없애기, 텀블러/머그컵 사용하기, 페이퍼리스 회의하기 등 많은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ESG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쌓게 된 것 같습니다.

4. ESG전략팀의 강점 그리고 ESG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ESG전략팀은 팀의 규모는 작아도 서로의 일상까지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협업 시너지 효과가 큼니다. 팀원들 모두 ESG에 진심인 점도 큰 강점이지요. ESG 관련 정보, 이니셔티브 등을 조사해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최신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또 회사의 다양한 활동을 꼼꼼하게 파악하기 위해 업무를 넓게 보는 시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분야, 대상, 이해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제도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ESG 평가도 기관별로 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해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회사 전반에서 각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업 부서에 개선과제를 배정하거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찰을 빚기도 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ESG 경영이 회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ESG 실천을 위해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처음 시작했을 때, 현업 부서와 미팅을 하면 “ESG가 뭐냐”는 질문부터, “꼭 해야 하느냐”는 등 ESG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ESG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현업부서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인 듯싶습니다. ESG전략팀은 앞으로도 환경, 안전, 인사, 사회공헌,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별 핵심 담당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ESG 계획 및 실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이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